

보기-> [인쇄 레이아웃] 해제를 해주시면 더욱 가독성이 좋습니다...

## 《 私立コン・チェルト学院 入学願書 》

“ 자, 같이 달려볼까~?! ”

『 거친 폭풍을 탄 아수라! 』

거친폭풍이 뭐냐고? 그야, 당연히 내 귀여운 바이크 이름이지~. 올라타볼래?

외관



## : Detail



## Item



### 바이크 키

"거친폭풍"의 열쇠.  
양증맞은 해골  
키링이 달려있다.  
온전히 자기 취향.

### 선글라스



자신의 생명과도  
같다고 자부하는  
선글라스. (카오가 사니까)

## \* | Appearance

- I. 여러 갈래로 뽀뽀 목덜미를 간지럽히듯 덮은 **젯녹색 머리카락**을 가볍게 쓸어올려 반으로 묶었다. 머리카락마저도 그의 성격을 닮아 고집스러운 듯, 단 한번도 차분해진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악성 직모**.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정리할때가 제일 두렵다고 한다....
- II. 두 눈에 살벌하게 수놓아진 **해골모양 동공**에, 늘 화난 듯 **당당한 듯한 눈썹**이 그의 첫 인상을 어렵게 만들어줄 수 있었으나... **부드럽게 처진 눈꼬리**에, 늘 **장난스러운 웃음**을 띤 얼굴 덕일까. 그의 뒤를 쫓는 소문들과는 다르게 사람 자체는 나빠보이지 않았다.
- III. **마른 근육질**의 적당히 **균형이 잡혀 단단한 몸**은 **쭉 뻗어 보기 좋은 비율**로, 아이돌이 아니었다면 모델로 일했어도 납득했을 만한 몸이었다. 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도 **돋보이는 편**이었으며, 이는 **비단 신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패션센스**도 한 몫을 했다. 관심을 끄는 것을 좋아하는 그는 늘 스스로가 **몰고 다니는 바이크와 같은 색의 새빨간 가죽자켓**, **장갑** 등으로 **치장하곤 했다**.
- IV. 그가 입은 **교복**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말 그대로 **복장불량**. **풀어헤친 셔츠**, **어딘가 가벼린 넥타이**부터 **사복**으로 대체한 **외투**까지... 늘 **적당히 편한 차림**으로 다니느라 **잔소리를 듣기 일쑤**라고.
- V. 키는 **182cm**, 몸무게는 **76kg**.

\*

## 이름

아라나기 사라 / 荒風 早羅 / Aranagi Sara

\*

## 나이/학년

17세 / 1학년

\*

## 성별

남성

\*

## 성격

\*이하 아라나기 사라 외의 모든 캐릭터들은 모브입니다.

### : 다정한 | 친화적인 | 자유로운 :

" 아라나기 사라? 개가 아이들과에 지원했다고요... 완전 의외다. 개 나이 차자마자 면허따서 바이크 몰고 다닌 거 아세요? 그냥 돈 많은 날라리가 웬 아이들... "

\_중학교 동창 A군.

\*1 | 대화를 해 보기 전 까진 모르는 법.

#### " 지각했어~? 태워줄게! "

- 성실하게 생겼다고는 못 할 외모, 어쩐지 불량할 것 같은 이미지와는 다르게 꽤 친절하고 상냥한 편이다. 의외로 타인에게 다정하며, 꾸밈없이 다가가 상대방이 지쳐서 떨어나갈때까지 들러붙곤 했다. 허나 원체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인지, 늘 넓고 얇은 인맥으로 살아왔다. 그럼에도 가끔 인간관계에서뿐만이 아닌 무언가에 흥미를 가지기도 했으나, 금방 싫증을 내곤 놓아버렸다. 늘 가벼운 마인드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은 단 한 곳에 구속당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꺼려했다.

## : 가벼운 | 여유로운 | 강철멘탈 :

" 사라 군, 어제 데이트 재밌었어~. 응? ... 라니? 그거... 내 이름 아닌데? "

\_ 그의 전 애인 중 한명.

### \*2 | 깃털처럼 가벼운 사람.

" 아하, 또 빵 맞았네~. "

- 원체 농담과 장난을 좋아하는 가벼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이야기에도 진지하게 응하지 않아 주변의 빈축을 사곤 했다. 심지어 상대의 말을 잘 안 듣는 경향이 있기에 대화 중 상대의 속을 터지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럴 때마다 정작 자신은 마냥 사람 좋은 얼굴로 스스로가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이끌어나가곤 했다. 이후 자업자득이라고, 오는 사람 안 막고 가는 사람 안 막던, 중학교에 재학하던 그 시절부터 그를 시샘하여 새삼스레 험뜯는 말과 좋지 않은 소문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래도 제 주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더욱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닐 뿐 더러, 딱히 틀린 이야기도 아니기에 그런 책망과 험담에 대해 그 누구보다 신경쓰지 않았다. 그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다른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는 것을 되려 즐기고 있지 않았을까.

## : 자존감 | 당당한 | 자기애 :

" 그 애도 참, 성격 안 고치면 나중에 큰일 날텐데... "

\_ 그의 어머니 H씨.

### \*3 | 자존감, 혹은 자기애?

" 거... 내가 그냥 잘난 걸 어떡하냐? "

-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의 1순위는 죽어도 제 자신이었고, 10위쯤 가서야 다른 이가 순위를 차지할까, 말까였다.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늘 주변의 시선은 뒷전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 자신. 언제나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있으며, 단 한번도 그 사실을 의심해본적 없다는 듯. 그렇기에 그가 느낄 수 없는 감정들 중 하나는 자책감이었다. 어쩐지 허세로 가득 차 제 멋에 살고, 죽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가도... 제 입으로 뱀은 말을 지키고, 말겨진 일들을 죽어도 해내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칭찬에 약한 사람. 그리 생각하면 그의 머릿속은 꽤나 단순했다.

## : 흥미주의적 | 단순한 | 고집 센 :

" 굳이 그 학원으로 가야겠니? 아이돌이 되고 싶은거라면, 다른 학원도 충분히 많은데 왜..."

\_그의 아버지 S씨.

\*4 | 지루한 일상, 그 안에서 자극을 찾다.

“ 심심하면 누가 더 빠른지 내기라도 하자고! ”

- 이미 위에서 서술했듯이, 의외로 단순한 사람. 누군가 입에 발린 말을 해줘도 마냥 기분이 좋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친구가 되자며 치대기도 했다. 그런 그는 딱히 무언가를 마음 속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으며, 그러고 싶어하지도 않았다. 한 번 사는 인생, 가볍게! 맘 편하게! 즐기다 가자는 것이 그의 좌우명. 그런 그에게 지루한 일상은 독이나 다름없었다. 늘 쾌락과 자극을 쫓았으며, 제 스스로가 경험해보지 못한 모든 일들을 손에 쥐고 싶어했다. 초등생이던 시절부터 온갖 학원을 다니고 1주 만에 끊는 것은 기본이요, 중학교로 들어가고 나서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사귀다가, 금방 헤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등학생이 되기 전, 면허를 따고 바이크를 몰고 다니기도 했으며... 심지어 콘 체르토 학원에 입학하게 된 계기 또한 그의 쾌락주의적인 성향 덕분이었다. 몇 년 전부터 이 학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현상이 일어난다니... 게다가 심령현상이라고! 학원에 대한 조사를 하던 중 읽은 기사는 실로 유혹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렇게 그는 콘 체르토 학원의 아이돌과로 망설임없이 입학 원서를 넣고야 말았다...

\*

## 기타

### 荒風 早羅

\*

03. 01 | 수선화, “자존감”

#### ★About | 荒風

- I. 일본의 정치계에서 유명한 집안. 아버지는 국회의원, 어머니는 의사. 아라나기 家の 막내이며, 위로 누나가 두명 있다. 이름은 아라나기 소라와 아라나기 세라, 워낙 뛰어난 두 명이기에, 애초부터 집안 내에서는 가업이 아닌 다른 것을 하고 싶어하는 막내에게 딱히 기대를 두지 않았다. 모든 정치계 수업은 누나들이 하고 있으며, 제 스스로도 그것에 만족하는 듯.
- II. 집안은 늘 정적이고 따분할지라도... 되려 그가 원하는 것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쪽에 가까웠다. 부족할 일 없게 돈을 주고, 바라는 바를 이루라고 하는 등... 허나 유일하게 큰 체르토 학원에 들어가는 것에는 그의 가족들 또한 두 번이나 말렸을 정도였다. 아무리 아이돌과 배우, 프로듀서를 비롯한 연예계 유망주들을 육성하는 예술 전문 학교라지만... 심령 현상이 일어난다는 저주받은 학원이라는, 흥흥한 소문이 마음에 걸렸다.
- III. 작년도, 재작년도... 라이브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했던데. 올해라고 다를까? 그의 가족들은 그가 입학한 한 해동안 지켜보기로 했다. 만약 올해의 마지막 라이브에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 때는 아라나기 사라가 학원에 더 있을 수 없을거라는 통보와 함께.

#### ★About | 早羅

- I. 큰 체르토 학원에 입학한 것은 온전히 제 스스로의 흥미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저주받은 학원, 심령현상, 이런 단어를 듣자마자 죽어라 연습해 아이돌과에 지원했을 정도로... 그는 이 상황에 대해 호기심이 그득하다. 누구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모든 걸 실험해보고 싶어하는 중.
- II. 늘 소지하고 다니는 소지품으로는, 바이크 열쇠와 반짝이는 **선글라스**. 열쇠에는 답지않게 귀엽고 앙증맞은 **해골모양 키링**과, 붉은색으로 튜닝한 바이크 리모콘이 달려있다. 선글라스는 거의 제 2의 신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몸에서 떼어놓는 일이 없다. 되려 누군가 가져가면 당황하는 등, 많이 아끼는 물건인 듯. 스스로 꽤나 멋있는 액세서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 III. 만 16세가 되자마자 취득한 바이크 면허. 붉은 빛의 바이크는 늘 닦아주어 광채가 났고, 사라는 제 애마(...)에게 제 이름에서 따온, **“거친폭풍”**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 보면 알겠지만, 그의 네이밍센스는 그저 최악에 가깝다... 그가 입은 가죽자켓도, 선글라스도, 장갑도, 앙증맞은 해골 키링도... 사실은 촌스럽기 짝이 없다. 하지만 원체 고집이 센 탓일까... 지적을 해도 늘 한 귀로 듣고 흘리기 일쑤다. 되려 멋있지 않냐며 되묻는 걸 보면... 고치기 어려울 것 같다.

- IV. 낮지도, 높지도 않은 딱 중간의 장난스럽고 가벼운 목소리. 어쩐지 꺾어진 말투로, 나이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반말을 사용했다. 어차피 50년 지나면 나이도 별 거 아니라며, 신경쓰지 말자며...
- V. 1인칭은 나 | 오레 (俺), 2인칭은 늘 -군, -씨... 등을 붙이지 않은 상대방의 이름, 또는 별명이었다. 그래도 손윗사람에겐 꼬박꼬박 선배라고 부르는 듯. 그럼에도 늘 반말을 썼기에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 VI. 요즘의 취미는 바이크를 타고 질주하기, 나무 위에 올라가보기, 학원의 불가사의에 대해 조사하기... 늘 확확 바뀌는 탓에 너무 많아 쓰기도 힘들 정도다. 특기는... 애초에 특기라고도 할 것 없이 웬만큼 모든 것을 평균 이상으로 잘 한다. 굳이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재능이 따라오는 천재였다.
- VII. 좋아하는 것은 역시 제 자신과, 제 기준의 귀엽고 멋있는 것들, 자극적이고 즐거운 사건, 자유... 외에도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것 또한 즐거운 사건에 속했기에. 싫어하는 것은 반대로 지루하고 따분한 일상,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는 것.
- VIII. 요즘의 관심사라면 말 그대로 학원에 대한 조사. 입학한 후엔 늘 연습을 하느라 제대로 깊이 파고들지 못했지만, 지금이라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와 함께.
- IX. 학교 내에서의 이미지는 말 그대로 날라리. 양아치. 어딘가 꺼려지는 인물상이지만... 의외로 한 번 친해지면 나쁜 놈은 아니었구나, 하는 반응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규칙을 어길 듯 말 듯 하는 행동으로,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마냥 문제아로 찍혀있었다. 심지어 머리를 쓰는 과목의 성적마저 약해 더욱... 하지만 공부를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흥미를 느끼지 못해 안 하는 것에 가까운 편이다. 마음을 먹는다면 금방 해낼 수 있을 타입. 그 마음을 먹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만...



“이야, 귀엽지 않아? 아이돌이라면 사인 정도는 있어야한다더라고~.”

제 이름, “**早羅**”에서 “**早**”한 글자를 따와 해골과 선글라스를 그려넣은 사인.  
... 손 가는 대로 그리다 보니 별이 자연스럽게 들어갔다.

**★As | IDOL**

- I. 확실히 잘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노래실력, 뒤쳐지지 않는 퍼포먼스를 소화하는 능력, 웬만한 악기는 연주할 수 있는 실력까지 갖췄지만... 춤에는 조금 약한 면모를 보였다. 허나 이마저도 적지않은 연습량으로 어떻게든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이끌어냈다.
- II. 주력 포지션이라 하면 역시 댄서보다는 보컬 쪽에 가깝다. 목을 굽는 듯한 창법은 락 스타일 음악에 걸맞았고, 그런 그의 실력을 칭찬하는 평론가들 또한 종종 볼 수 있었다.
- III. 가벼운 면모와는 달리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기에 팬 서비스는 확실한 편.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제게 무한한 애정을 준다는 것이 꽤 흥미로운 일이었던 듯 하다.

IV. 허나 개인 SNS는 두 달에 한번 올라올까 말까 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로그인하는 것조차 금방 싫증을 느끼는 그의 성격 탓이다. 그래도 한 번 로그인하면 제 근황과 찍었던 사진들을 마구 업로드하는 편. 물론 금방 질려 로그아웃 해버리는 것이 일상이지만...

\*

## 퍼스널 컬러

# Personal Color

#91B073



#E10E0E

Created by Fahmi  
from Noun Project  
Created by Ben Davis  
from Noun Project

#91B073 / #E10E0E

\*

## 텍관

\* 니시요츠츠지 리리에

콘 체르토 바이크 동호회!

~ 부원 절찬리 모집 중! ~

“선배, 같이 라이딩하러 안 갈래요? 아니면 레이스?! 어느 쪽이든 좋다! 그렇지?!”  
어쩐지 의외의 조합인 이 둘은 서로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 것은 바로 바이크! 마냥 질주하듯 도로변을 달리던 사라가 어딘가 눈에 익은 교복을 입고 바이크를 탄 리리에를 만나게 된 후로, 학교에서도, 밖에서도 마냥 친한 척 들이대고 있다. 같이 라이딩하러 나가자거나, 한 번 레이스를 하지 않겠냐는 등... 기계에 능통한 리리에에게 수리까지 부탁할 정도로 그를 계속 귀찮게 하는 중. 물론 열 번을 물어보면 열 번의 거절이

돌아오지만, 더 들러붙었으면 들러붙었지, 쉽게 굴하지는 않는다고... 아무튼 귀찮은  
후배다.

\*

## 유닛

### 掙鬪

장엄한 오방신수를 모티브로 한 유닛, 掙鬪청량. 무엇이든 금방 싫증을 내버리는 그마저도 화려한 안무를 소화하며 어두운 무지갯빛 베일을 흘날리는, 마치 범접할 수 없는 신들의 모습에 홀려버리듯 흥미를 가졌다. 다양한 색상의 화염이나, 매서운 바람소리... 마치 거친 폭풍처럼 모든 것을 쓸어가는 듯한 모습이 분명 그의 마음에 들었으리라. 결국 그는 그 완벽한 무대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 혹독한 연습을 지속했고, 이후 포지션 중 현무의 자리를 꿰찼다. 답지않게 유닛원들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가깝다고 여기는 듯. 청량은 구속되는 것이 싫은 그가 유일하게 소속감을 느끼는 곳이다.

무대 위에서의 진지한 모습과 무대 아래에서의 한량같은 모습이 꽤나 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

## 동아리

“산림 생태 관찰부라면 적당히 바이크를 몰고 산책을 다녀와도 되는, 그런 곳이지 ... .. 뭐? 아니라고?”

그 어떤 동아리라도 괜찮다는 생각에 아무데나 짚어 들어간 곳. 늘 유령마냥 동아리실에서 잠만 자거나, 땡땡이를 치는 등... 부원들과 부장의 속만 썩이는 문제가 가득한 부원.

\*

## 기숙사

○